

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후 이차 관절경 검사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안진환 · 이종열 · 오일빈

목 적

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후 이차 관절경 검사를 통해 이식건에 따른 치유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반월상 연골의 치유 상태를 직접 평가 분석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397예 중, 이차 관절경 검사를 시행한 81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이차 관절경 검사는 재건술 후 평균 18.8개월에 시행하였고 자가 슬개건을 사용한 경우가 53예, 자가 슬관건을 사용한 경우가 28예였다. 28예에서 반월상 연골의 봉합을 시행하였다. 탐침 및 육안으로 이식건과 관절내 구조물을 관찰하였고, 재건술 전과 1년 후에 Lysholm 점수, KT-2000 관절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호전 정도를 비교하였다.

결 과

활액막 형성 정도는 시각 등급으로 나누어, 슬관건 군에서 good 25예, half 2예, pale 1예였고, 슬개건 군은 good 38예, half 4예, pale 11예였으며, 이식건의 긴장도는 탐침 시 이식건의 이동량에 따라 분류하여, 슬개건 군이 정상이 41예, 느슨함이 12예였고, 슬관건 군이 정상이 22예, 느슨함 6예였다. 이식건의 긴장도와 Lysholm 점수, KT-2000 관절 계측 결과 등을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, 슬관건 군에서 활액막 형성이 더 우수하였다. 이식건의 긴장도가 정상인 23예 중 반월상 연골의 완전 치유가 19예였고 불완전 치유는 4예였으며, 이식건이 느슨한 긴장도를 보인 6예 중 반월상 연골의 완전 치유는 2예, 불완전 치유는 3예, 치유되지 않음이 1예였다.

결 론

자가 슬개건과 자가 슬관건은 이식건의 긴장도에 차이가 없었으나, 활액막 형성은 자가 슬관건이 우수하였다. 이식건의 긴장도가 정상일수록 반월상 연골의 완전 치유가 많았다.